

퍼펙트 스톰: 인적 자본이 유일한 돌파구

“이번 폴 크루그먼 강연은 CARROT이 젊은이들에게 지성의 눈을 뜨게 하고, 삶의 통찰을 주고자 시작한 세계석학초청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현실에 굴하지 않으며, 삶에 직면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 사람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본성상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10일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노벨경제학 수상자이며,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예측한 폴 크루그먼의 내한강연이 있었다. 사회경제의 관심을 받은 대가답게 강좌는 복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강연의 끝에서 2013년 경제전망에 대한 질문에 크루그먼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I have no idea!” 위기를 예측했던 경제학자에게도 오늘의 불확실성은 녹록치 않은 듯 했다.

닥터 돔(Dr. Doom)이라는 별명을 가진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이러한 오늘의 경제적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두 개의 태풍이 만나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가 향후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혁신과 교육, 특히 지식에 의해 발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렇다. 대표적 비판론자가 찾은 최후의 대안은 바로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성장과 혁신의 모멘텀이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마치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가 대자연을 정확하고, 균형 잡히게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의 복잡성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에게 이 정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기에 적응의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움틀 것이다.

James Roh

이번 폴 크루그먼 강연은 CARROT이 젊은이들에게 지성의 눈을 뜨게 하고, 삶의 통찰을 주고자 시작한 세계석학초청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 지난 4년간 준비해서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내년이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현실에 굴하지 않으며, 삶에 직면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 사람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2013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밤, 낮으로 함께 호흡하고, 달려온 모든 CARROTian들과 강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역량을 견인하고 있는 HRDer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다.

We Serve The Global Success!
Written by C.E.O James Roh (노상충)

“내일이여,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난 오늘을 충실히 살았으니” - 존드라이든

